

이주의 본당소식

*본당의 새로운 소식을 알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본당 울뜨레아**
울뜨레아 월례 회합은 매월 셋째 목요일 오후 7시입니다.
- **양로원 미사**
매월 셋째 목요일 오후 3시에 있습니다.
- **제41차 남성 꾸르실료 교육**
일시 : 10월 24일(목) - 27일(일)
장소 : 뉴턴 수도원
문의 : 신부님 혹은 윤모니카 회장님
- **제24차 이냐시오 영성 4박 5일 침묵 피정**
주제 : 내적 자유를 향한 여정
일시 : 8월 14일(수) - 18일(일)
참가비 : \$480 선착순 : 50명
문의 : 이수영 에우프라시아 자매님
- **성가책 판매**
소 : \$25, 대 : \$30
- **성모님 꽃 봉헌**
성모님께 꽃 봉헌하실 분들은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 **2019년 성지 순례**
사도 바오로의 발자취를 따라서
장소 : 터키, 그리스 13일
날짜 : 9월 29일(일) - 10월 11일(금)
비용 : 3,195불 (필라델피아 출발)
문의 : 윤모니카 회장님(254-289-1682)
- **우리 모두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치유의 은총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관우 바오로 부제, 이길자 데레사, 배향숙 루시아,
한 베드로>

모두함께! 구역소식

*구역 여러분 모두의 참여로
이루어가는 공동체입니다!

- **구역 모임**
마틸다 구역 : 8월 7일(수) 오후 7시에 성당 친교실(혹은 교실)에서 있습니다. (박영희 마틸다 자매님 주관)
- **환영합니다**
이흥일 프란치스코 형제님은 마리아 구역으로 송성훈 형제님은 제노베파 구역으로 전입되었습니다.

신자들의 소식 나눔터

*환영, 환송, 축하등
모든 신자들의 소식 나눔터입니다!

알립니다!

- * 이번달 상품권 판매는 **평협회** 구역입니다.
- * 이번달 친교실 청소 담당은 **글로리아** 구역입니다.
다음달 친교실 청소 담당은 **마틸다** 구역입니다.

St. Yi Yun Il John Korean Catholic Mission 체리힐 한인 천주교회

주임신부: 김도윤 프란치스코
평협회장: 윤모니카



2001 Springdale Rd. Cherry Hill, NJ 08003 (ST. MARY내 위치)

856-912-1355

chkcc.org

미사안내

주일 : 오후 5시
평일(목요일) : 낮 12시

성사안내

고백 성사 : 미사 30분 전
혼인 성사 : 3개월 전 신청
병사 성사 : 위급할 시 언제든지
유아 세례 : 1개월 전 신청

* 단체모임 안내

여성 레지오(평화의 모후) :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
울뜨레아 : 매월 셋째 목요일 오후 7시
예비자 교리 : 매주 일요일 오후 3시 30분
평협회 : 수시 모임, 수시 공지

오늘의 **미사 전례**

*미사시작 20분 전에 기도와 성사로
마음의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입당성가	29번 주 예수 따르기로
제1독서	창세기 18, 20-32
화 답 송	◎ 주님, 제가 부르짖던 날, 당신은 응답하셨나이다.
제2독서	콜로새서 2, 12-14
복음 환호송	◎ 알렐루야. ○ 우리는 성령을 받아 하느님의 자녀가 되었네. 이 성령의 힘으로 우리가 하느님께 “아빠! 아버지!”하고 외치네.◎
복 음	† 루카 11, 1-13
봉헌성가	212번 너그러이 받으소서
성체성가	182번 신묘하온 이 영적
퇴장성가	44번 평화를 주옵소서



이주의 **미사전례 봉사자**

주 일	연중 제17주일 7월 28일	연중 제18주일 8월 4일	연중 제19주일 8월 11일
제1독서	신선희 카타리나	신선희 카타리나	하국일 암브로시오
제2독서	박영희 마틸다	김정숙 이사벨라	김재숙 제노베파
봉 헌 자	백윤기, 허인선	권수희, 이순덕	안우풍, 이경실

오늘의 **묵상**

우리는 언제나 자신에게 필요한 것을 하느님께 청하곤 합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아무 답도 없으신 하느님 때문에 절망하곤 합니다. 그런 체험을 가지신 분들이 가끔 이런 질문을 합니다. “하느님께서는 도대체 얼마나 기도해야 들어주실까요?” 그러면 저는 농담 삼아 이렇게 답하기도 합니다. “들어주실 때까지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느님께서 들어주시든지, 아니면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어 주시든지 할 겁니다.”

우리는 대개 기도 안에서 자신이 원하는 바를 하느님께 청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서는 주님의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그분의 나라가 오시고,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청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하느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느님께서서는 당신의 뜻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가 바라는 것,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도 하느님께 청해야 합니다.

주님의 기도에서도 일용할 양식과 죄의 용서, 악에서의 구원을 청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그것 역시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바입니다. 이렇게 보니 주님의 기도는 하나부터 열까지 모두 주님께서 바라시는 바, 주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청하는 기도입니다.

사실, 무엇을 청하든지 기도의 마지막은 아버지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이어야 합니다. 모든 것은 아버지 손에 달려 있으니 말입니다. 이렇게 보니 기도 때 많은 말이 필요 없을 듯합니다. 그렇지만 오늘도 저는 아버지를 귀찮게 하는 어린아이처럼 바라는 바를 아버지께 청합니다. 그분께서는 제가 무엇을 청하든 언제나 저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주님께서서는 제가 바라는 방식이 아니라 당신께서 바라시는 방식으로 저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입니다. (염철호 요한 신부)

우리들의 **기도**

평화의 기도
- 성 프란치스코의 기도 -

오 주님,
저를 당신의 평화의 도구로 써 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의심이 있는 곳에 믿음을 심게 하소서.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심게 하소서.

오 거룩하신 주님,
제가 위로 받기 보다는 위로하며 살게 하시고,
이해 받기 보다는 이해하며 살게 하시고,
사랑 받기 보다는 사랑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 주소서.

우리는 베풀어야 받을 수 있고,
용서해야 용서 받을 수 있으며,
죽어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들의 **주일정성** <7월 21일(일)>

봉헌금	\$475.00
교무금	\$920.00 김영복(7-12), 박영희(7), 장석영(7,8), 최만섭(1-6)
미사예물	\$75.00
장례미사	\$250.00
Total	\$1,720.00